

제주방언에서 [·]음의 음향분석*

김 원 보 (제주대학교)

Kim, Wonbo. 2005. The Acoustic Analysis of [·] in Jeju Dialec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33, 23-36. This research has acoustically analyzed the formant frequencies of the vowel [·] and other vowels in the Jeju dialect in order to reveal the acoustic value of the former vowel in relation to the other vowels. It concludes that its acoustic value is so different from its similar vowels such as [a], [o] or [ə] that it is a distinctive vowel separate from the other vowels in the Jeju dialect. In addition, it shows that the vowel [·] in the Jeju dialect has the phonetic value of a mid rounded back vowel on the basis of its acoustic analysis and therefore should be represented as [ɔ] rather than [ɔ̃] in the IPA system. (Ch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음향분석 (acoustic analysis), 제주방언 (Jeju Dialect), 포먼트 주파수 (formant frequencies), 모음 (vowels), 음향가 (acoustic value)

1. 서론

제주방언에는 다른 방언에서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경에 이미 소실되어버린 중세국어 [·]음의 발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현재제주방언서의 [·]음의 조음 상태를 보면 혀는 구강의 뒤쪽으로 물러나고 연구개는 올라간다. 이때 후설 쪽이 조금 높아지기는 하지만 [ɔ̃]를 발음할 때보다는 낮고 [ɔ]를 발음할 때보다는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개구도 면에서는 [ɔ̃]보다는 조금 좁은 상태에서 조음되며,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AS2029)

원순성에서는 [ɾ]와[ɳ]의 중간정도에서 조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제주방언의 [ɳ]음의 발음은 중세국어의 원래발음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음적 음향적 측면에서 제주방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ɳ]음의 규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며 더 나아가 중세국어 당시 그 음의 원래음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있는 선행연구임에 틀림없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본고는 제주방언의 [ɳ]음을 음향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음의 음향학적 특징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제 2장에서는 제주방언의 [ɳ]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펴볼 것이며 제 3장에서는 [ɳ]음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ɳ]음은 물론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단모음들을 음향학적으로 비교·분석하여 [ɳ]음의 음향적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제 1장과 5장은 본고의 서론과 결론이 될 것이다.

2. 제주방언에서의 [ɳ]음에 대하여

제주방언의 [ɳ]음의 사용상태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1) (a) 멍쟁이 “망아지”, 스납다 “사납다”, 학교 “학교” (b) 으둡 “여덟”, 다 듣다 “다 다르다”, 생스“생사” c) 으 “어”, 으상으상 “하는 일 없이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모양”

(1a)는 어두음절에 [ɳ]가 쓰인 예이고, (1b)는 비어두음절에, (1c)는 어두위치에 [ɳ]가 사용된 예로 노인층의 발음에서는 아직도 [ɳ]모음이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창제당시는 [ɳ]음을 어떻게 규정하였을까? 훈민정음 해례(제자해)에는 7개의 단모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舌縮而 聲深— 舌小縮聲不深不淺— 舌不縮而聲淺— 舌與·同而口蹙— 舌與·同而口張— 舌與·同而口蹙— 舌與·同而口張—”

위의 인용문을 해석하면 [ɳ]는 혀가 뒤쪽으로 상당히 물러난 상태에서 조음되고 음의 인상이 깊으며, [ɳ]는 혀가 약간 뒤쪽으로 물러난 상태에서 조음되며 음

의 인상은 깊지도 낮지도 않으며, []는 혀가 곧은 상태에서 조음되며 그음의 인상은 낮다. [니와 [ㄴ]는 혀의 상태나 음의 인상측면에서 [·]에 비슷하지만 개구도면에서 [·]는 [니]보다는 넓지만 [니]보다는 좁다. 그리고 혀의 상태나 음의 인상측면에서 [ㄴ]내 [니]는 [·]에 비슷하지만 혀의 개구도 측면에서는 [·]는 [니]보다는 넓지만 [니]보다는 좁다.¹⁾

이런 규정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모음은 개구도의 측면에서 [니와 [니]모음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모음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중세국어에서 [·]모음이 [니와 [니]모음과 동일계열의 모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설명은 현재의 제주방언의 [·]모음에 대한 설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제주방언의 [·]음의 조음에 대하여는 小倉進平(1944, 현평효(1985:317)에서 재인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에 있는 ‘·’음의 성질은 조선반도 어느 지점에서든 발견할 수 없는 특종의 음에 속한다. 이것을 음성학적으로 관찰하면 별단의 지위에 배치하여야 할 것인 듯하다. 즉 폐음 오[·]와 개음 어[·]와의 중간에 위치하고 국어(일본어)의 ‘才’에 유사하고 있는 듯하지만 국어(일본어)의 ‘才’ 보다는 좀 입술이 둥그러함을 띠고서 발음해지는 음으로 느껴진다. 이제 나는 이것을 이탤릭 ‘o’로 나타낸다. ‘o’의 원음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잠시 이것을 유보해두고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의 ‘o’음의 발음은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를 주는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일본인 학자는 제주방언의 [·]를 한국어의 특이한 모음으로 [니와 [니]의 중간에 위치하는 음으로 인식하고, 다른 음보다도 [니]에 인접한 음으로 간주하였다.

중세국어의 [·]음을 규정한 훈민정음해례(제자해)와 제주방언에서의 [·]음의 조음에 관해 언급한 일본인 학자의 설명을 참조하면 [·]음은 [니, [니], [니]음의 사이에 위치한 음으로, 제주방언의 [·]음의 조음을 설명하는 다른 학자들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미묘한 부분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음의 정확한 음가를 음향분석을 통해 규명하려고 한다.

1) 이 해석은 현평효(1985:323)에 근거한 것이다.

3. 선행연구

[i]음의 중요성을 인식한 현평효(1985:325)는 조음적 청각 인상적 측면에서 제주방언의 [i]음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제주방언에서 [i]음은 아직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2) 제주방언의 [i]음은 후설뒹쪽에서 조음되므로 발음하기에 노력이 들고 힘이 드는 음이다. (3) 제주방언의 [i]음은 원래 [i]음이 변화해서 된 [i]나[ɨ]가 아니라 15세기의 [i]의 잔존 음이다. (4) 제주방언에서의 [i]음은 대개 16세기 후반기의 상태이다. (5) 제주방언의 [i]음은 [i]의 후고음이다.

[i]음에 대한 현평효(1985)의 연구는 주관적이고 청각인상적인 관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객관성·엄밀성·체계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제주방언에서 [i]음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조음적 음향적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의 연구 이후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 조음적 음향적 관점에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주방언의 [i]음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왔으나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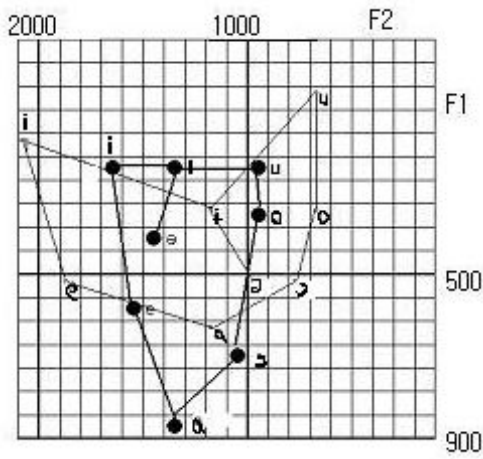
리고 제주방언의 [i]음에 대한 음향 분석적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중 그나마 주목할 만한 것으로 김한곤(1980)과 현우중(1988)을 들 수 있다. 전자는 1969년 당시 제주시에 거주하는 80세 남자를 제보자로 하여 다양한 위치에 나타나는 [i]음을 비롯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녹음하였다. 후자는 출생·성정 과정이 제주도박이인 필자 본인의 [i]를 비롯한 단모음의 발음을 녹음 분석하였다. 김한곤(1980)의 경우는 다양한 어휘 속에 실현되는 단모음들을 분석하였으며, 현우중(1988)의 경우 「이, 에-월, 아-방, 오-름, 우-리라, 으-생이, 어-명」의 [i], 에, 아, 오, 우, 으, 어」를 분석하였고, [i]는 「ㄱ새, ㄴ람지, ㄷ리, ㅁ슴, ㅅ(ㅅ)즈매, ㅈ레」의 [ㄱ, ㄴ, ㄷ, ㅁ, ㅅ, ㅈ, ㅊ]를 분석하였다 이 두 연구결과 얻어진 제주 방언의 [i]음을 비롯한 단모음의 제1포먼트 주파수(F1)와 제2포먼트 주파수(F2)는 다음과 같다.

(2) 김한곤(1980)과 현우중(1988)의 포먼트 주파수²⁾

		i	e	a	ɔ	o	u	ɨ	ə
F1	현우중(1988)	250	550	725	570	400	150	400	525
	김한곤(1980)	318	626	869	701	415	311	321	466
F2	현우중(1988)	2,250	1,950	1,175	840	650	688	1,125	975
	김한곤(1980)	1,780	1,690	1,490	1,224	952	915	1,283	1,395

일반적으로 F1은 모음의 개구도와 관련이 있다. 즉 개구도가 큰 모음일수록 F1이 높고, 작은 모음일수록 F1이 낮다. 따라서 고모음은 F1이 낮고 저모음은 F1이 높다. 그리고 F2는 모음의 전후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설모음일수록 F2가 높고 후설모음일수록 F2가 낮다. 이런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2)에 주어진 포먼트 주파수를 포먼트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김한곤(1980: ●으로 표시)과 현우중(1988: ○으로 표시)의 포먼트 도표



(3)를 보면 [ɨ]는 [a]와 [o]의 중간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와는 구별되는 음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우중(1988)의 포먼트 도표가 김한곤(1980)의 것보다 넓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것은 녹음제보자의 성도의 길

²⁾ 여기서는 제주방언의 [·]음을 IPA로는 [ɨ]로 표기하고 있음

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두 연구는 제주방언의 [ɨ]음에 대하여 음향적 분석을 시도하여 [ɨ]음이 다른 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음가를 지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녹음제보자가 각각 1명이어서 그 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더군다나 전자의 경우는 연구자와 녹음제보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통역이 의사소통을 도와줘야 했으며, 후자의 경우는 연구자 자신이 녹음제보자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음향적 방법도 지금의 발전된 분석방법과 비교하면 상당히 초보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서 분석의 정확성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ɨ]음의 음향분석

이 장에서는 제주방언의 [ɨ]음을 비롯한 [i, e, æ, ɛ, a, o, u] 등의 9개 단모음을 음향적으로 분석하여 포먼트 도표로 나타낸 것은 물론, 다른 모음과는 구별되는 [ɨ]모음의 음향적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4.1 자료수집과 녹음 및 분석방법

제주방언의 단모음에 관한 녹음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방언조사지와 모음조사 목록을 만들었다. 전자에는 피조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현거주지의 거주기간, 조사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에는 다음과 같이 각 모음별 녹음할 어휘목록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녹음단어카드를 만든 후 목표음을 녹음하였다.

(4) 제주방언 단모음의 조사목록

1. 이/i/: 이마
2. 에/e/: 배
3. 에/æ/: 배(등짐을 질 때쓰는 줄)³⁾

3) ‘배’와 ‘배’의 모음발음에 있어서 노년층의 제주방언화자들은 발음교체에 의해 전자를 저모음 ‘æ’로 발음하고 후자를 중모음 ‘e’로 발음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글자에 관계없이 전자의 발음

4. 아/aʔ: 아버지(아빤)
5. 으ʔ: 으르렁
6. 어/əʔ: 어머니(어멍)
7. 우/uʔ: 우산
8. 오/oʔ: 오름
9. 으/ɔʔ: 으(=응: 손아래 사람인 상대방의 하는 말에 동의할 때 하는 대답)⁴⁾

녹음대상인 피조사자는 모두 제주에서 출생 성장한 70대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제주의 각 지역 토박이들이다. 그리고 피조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각 시군별로 남녀 각1명씩 2명을 선정하여 총 8명을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별 녹음지역과 피조사자는 다음과 같다.⁵⁾ 그리고 [·]음의 분석에서 피조사자를 70대로 한정된 것은 [·]음이 노년층의 발음에 비교적 뚜렷이 남아있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20대와 50대의 발음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였다.

(5) 방언조사지역 및 피조사자

이름	나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도남동	건입동	법환동	도평동	남읍리	평대리	화순리	외귀리
이운화	78	남							
고해순	77		여						
강용후	71			남					
오계술	73				여				
이창희	74					남			
오성숙	77						여		
강문팔	82							남	
김례	77								여

을 ‘ㅁ’음으로 분석하고 후자를 ‘ㄱ’음으로 분석하였다.

- 4) 여기서 ‘으’를 [ɔ]로 한 것은 녹음하기 전 조사목록을 만들때 이미 그렇게 표기하였으며, 이것은 아마도 필자가 제주방언의 ‘으’가 [ɔ]보다는 [ʉ]에 가깝다고 판단한 주관적 느낌에 기인한 것으로 본고의 결론적 사실과는 무관하다.
- 5) 녹음은 세대별 언어변화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70대 이상, 50대, 20대 각각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3명씩 총 96명을 녹음하였으며, 여기서의 분석은 그 96명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발췌한 일부분이다.

그리고 녹음방법으로는 조용한 장소에서 피조사자에게 그림카드를 보여주고 순서대로 질문하면서 발화자의 최대한 자연스런 음성을 녹음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녹음과정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에만 다시 반복하게 하여 녹음하였으며 원칙적으로 한 단어를 한번에 녹음하려고 하였다. 녹음장비로는 우선 Sony사의 모델명 ECM-MSD1의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했으며 프리앰프(Pre-Amplifier)로는 Creative Technology사의 모델명 SB0300을 이용했으며, Adobe Audition 1.5를 이용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녹음자료를 직접 저장한 후 편집하였다. 그리고 녹음분석은 WaveSurfer 1.7.5 음향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음자료를 분석하였다.

4.2 연구결과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모음을 비롯한 단모음을 음향분석하여 각 모음의 포먼트를 측정하였다. 표(5)는 제주방언에서 남녀 모음의 제1 포먼트, 제2 포먼트 및 제3 포먼트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6) 제주방언 남녀의 모음 포먼트 평균값

K C I

		남				평균	여				평균
		법환	납읍	도남	화순		토평	평대	건입	의귀	
ㄹ	F1	274	287	319	330	303	251	260	280	225	254
	F2	2157	2176	1973	2091	2099	2488	3051	2871	2601	2753
	F3	4218	3261	2925	3267	3418	3393	3674	3321	3659	3512
ㄴ	F1	706	647	604	656	653	509	739	703	724	669
	F2	1615	1861	1776	1790	1761	2244	2109	2564	2419	2334
	F3	3815	2457	2457	2616	2836	2448	2681	3054	3065	2812
ㄷ	F1	482	435	489	497	476	411	522	480	479	473
	F2	2072	2021	1868	1926	1972	2441	2190	2449	2384	2366
	F3	2707	2313	2476	2537	2508	3040	2937	3085	3001	3016
ㅌ	F1	843	945	785	718	823	1089	1112	1048	962	1053
	F2	1229	1342	1311	1387	1317	1718	1903	1786	1496	1726
	F3	2408	2656	2578	2477	2530	2698	3135	2554	2659	2762
ㄹ	F1	242	398	326	381	337	300	389	475	371	384
	F2	945	1263	1100	1309	1154	1123	1404	1237	1293	1264
	F3	2435	2424	2349	2250	2365	2661	3070	3119	2737	2897
ㄴ	F1	534	428	524	478	491	356	703	602	655	579
	F2	1086	1133	1196	1269	1171	904	1393	1250	1323	1218
	F3	2532	2346	2444	2435	2439	2617	3029	2766	2889	2825
ㄷ	F1	285	317	268	354	306	334	364	313	344	339
	F2	812	2085	686	1076	1165	900	902	722	775	825
	F3	2527	2844	2642	2349	2591	2572	3320	2746	2967	2901
ㅌ	F1	343	397	294	402	359	343	497	466	390	424
	F2	596	767	651	824	710	767	1023	741	779	828
	F3	2759	2254	2188	2436	2409	2523	3250	2352	3033	2790
ㄹ	F1	548	614	564	552	570	570	736	751	775	708
	F2	775	849	819	1115	890	958	1038	1212	1423	1158
	F3	2929	2737	2518	2400	2646	2947	3069	2453	2840	2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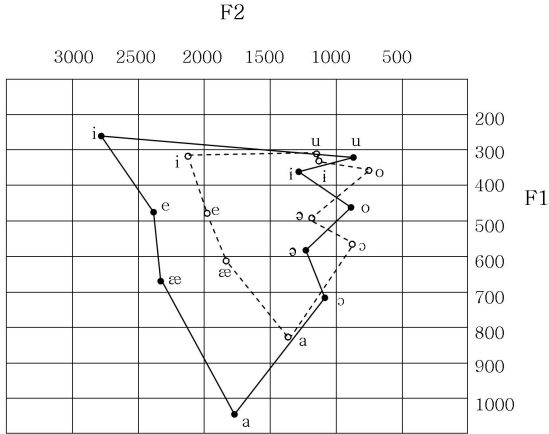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모음의 포먼트 값은 남자가 570-890-2646, 여자가 708-1158-2827이다. 이 포먼트 값을 후설 중모음과 저모음인 [ㅌ], [ㄴ], [ㄹ] 모음과 비교해보면 [ㅌ]는 남자가 823-1317-2530, 여자가 1053-1726-2762, [ㄴ]는 남자가 491-1171-2439,

여자가 579-1218-2825, [ɰ]는 남자가 359-710-2409, 여자가 424-828-2790이다. 이런 비교를 통하여 음의 고저와 관련이 있는 제1 포먼트에서 [ɰ]는 [ɰ]보다는 낮지만 다른 음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ɰ]보다는 고모음이지만 다른 모음들보다는 저모음이고, 음의 전후와 관련있는 제 2 포먼트에서는 [ɰ]나 [ɰ]보다는 낮고 [ɰ]보다는 높아서 전자의 두음보다는 후설모음이지만 후자의 모음보다는 전설모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ɰ]와 [ɰ]모음도 모음포먼트가 남자는 653-1761-2836Hz와 476-1972-2508Hz이고, 여자는 699-2334-2812Hz와 473-2366-3016Hz로 음의 고저와 관련이 있는 F1에서 확연히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하여 (6)에 주어진 포먼트 주파수를 포먼트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 C I

(7) 포먼트 도표(점선:여자, 실선:남자)



(7)의 포먼트 도표를 보면 여자의 공명기관이 남자에 비해 짧기 때문에 공명주파수가 높게 나타나고 이런 사실은 포먼트 도표상에서 여자의 포먼트 도표가 남자보다 좀 더 넓게 퍼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음은 남자나 여자모두 거의 대칭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i]와 [ɨ]모음의 사이에 거의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지만 [ɨ]와는 분명히 다른 음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3 [·]모음의 음가

제주방언의 [·]모음은 다양한 음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IPA 표기로는 주로 [ɨ]보다는 [ɨ̇]로 표기되어서 후설 원순 저모음으로 간주되어 왔다. 제주방언의 [·]를 후설원순 저모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다음의 한국어 단모음체계에서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모음이 후설원순저모음이기만하면 단모음 체계가 정확하게 대칭적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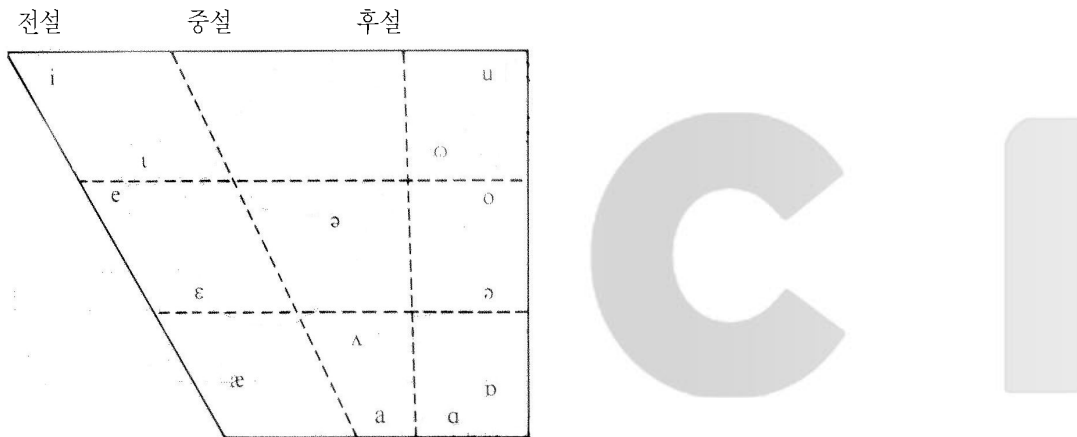
(8) 표준 한국어 단모음체계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i	ɨ	u
중모음	e	ɘ	o
저모음	æ	a	ɔ

더군다나 한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여서 우리 선조들도 한글을 만들 당시 이처럼 쉽게 눈에 들어오는 대칭성을 놓칠리는 없지 않은가! 물론 한글 창제당시에 제주방언에 실현되는 [ɨ]모음은 바로 후설원순저모음이었을런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제주방언의 [ɨ]모음은 IPA 체계에서 후설원순저모음인 [ɨ]로 표기되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음, 특히 모음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ɨ]는 후원순저모음이었으나 그 음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해서 노년층의 발음에는 변화된 [ɨ]의음가가 남아있으나 지금의 젊은층에서는 [ɨ]로 상승해서 합쳐졌다고 한다.⁶⁾ 즉 중세국어에서 원래 원순저모음이었던 [ɨ]가 점점 상승화의 추세를 겪어서 노년층에서 는 [o] 음의 전단계인 [i]로 남아 있으나 젊은층에서는 완전히 상승하여 [ɨ]와 합쳐져 [o]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평호(1985)도 제주방언의 [ɨ]는 한글 창제 당시의 음가라기보다는 16세기 후반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7)에 주어진 음향분석에 근거한 제주방언의 모음도표와 Ladefoged (1982)가 제시한 다음의 영어 모음도표를 비교해보자.

(9) 영어모음도표



6) 정승철(1995:27-30)참조.

(7)의 도표에서 [·] 모음이 주변의 다른 음들과 비교해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는 (9)의 도표에서 [o] 보다는 [ɔ]에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몇 가지 사실에서 제주방언의 [·]모음은 IPA 체계에 따라 표기할 때 후설원순 저모음인 [ɔ]가 아니라 후설원순중모음인 [ɔ̄]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결론

70대 이상의 제주방언화자에게 있어서 [·]모음은 음향분석 결과 [ɔ̄]나 [ɔ̄], 또는 [ɔ̄] 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포먼트를 가진 변별적 모음이며, 모음도표에서 보면 전자의 두음보다는 후설모음이지만 후자의 모음보다는 약간 앞쪽에서 조음되고, [ɔ̄]모음보다는 고모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 모음의 포먼트 분석에 근거한 모음도표를 Ladefoged(1982)의 모음도표와 비교해보면 제주방언의 [·]모음은 [ɔ̄]보다는 [ɔ̄]와 유사하므로 IPA로 제주방언의 그 모음을 표기할 때 후자인 후설 원순 중모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런 사실은 현평호(1985)가 주장한 제주방언의 [·] 모음은 한글 창제당시의 음가라기보다는 16세기 후반의 음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아마 한글 창제당시에 [ɔ̄]의 음가를 지녔던 제주방언의 [·]모음이 어떤 이유에서 점점 더 [ɔ̄]나 [ɔ̄]모음 쪽으로 이동변화해 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현재 50대 이하의 제주방언화자는 그 음을 그 두 음쪽으로 통합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더 이상 그 음을 독자적인 음으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짐작을 하게 한다.

이런 사실은 이번 녹음과정에서 실제로 확인한 것으로, 여기서 분석된 8명의 피험자를 포함해서 녹음에 참여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각 지역별로 남녀 각 4명씩 총 32명의 모든 70대 이상의 제주방언화자가 [·]모음을(4)의 녹음자료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음 {·}로 완벽하게 발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 음이 음절중간이나 음절말에 나타나는 경우도 무리없이 발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50대 이후의 제주방언화자(32명)는 그 음이 음절 중간이나 음절 말에 나타나는 경우는 비교적 무리없이 쓰는 경향이 있었으나 독자적인 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20대 화자

(32명)는 독자적인 음으로 발음하는 화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음절 중간이나 음절 말에 쓰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⁷⁾ 이런 세대별 [·]음의 사용빈도는 얼마나 그 음이 여전히 발음하기 껄끄럽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음이 아니어서 그 음을 [나]나 [키]음으로 통합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주방언의 [·]모음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음은 이제 30년쯤 후에는 완전히 국어사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다.

참고문헌

- 구희산·고도홍·양병곤·김기호·안상철 역(1998). 「음성학과 음운론」, 한신문화사.
- 김한곤(1980). “제주도 방언 모음체계의 음향분석”, 『현평호 박사 회갑기념논총』, 289-297.
- 김현기·이은영·홍기환(2002). “파워스펙트럼 및 후두내시경을 이용한 방언 음성 실험적 연구.” 『음성과학』 9(2), 25-47, 한국음성과학회.
- 신지영(2001). 「말소리의 이해-음성학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원광대학교 음성정보기술산업지원센터(2005). 제 14차 SITEC 단기 강좌 교재.
- 이기문(1998). “제주도 방언의 ‘ㅇ’와 관련된 몇 문제.” 『방언』, 이병근·곽충구 편, 태학사, 227-241.
- 이병근·곽충구 편(1998). 『방언』, 태학사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 정승철(1998). “제주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8(4), 133-152, 국립국어연구원.
- 한말연구회 편(1997). 『우리말음운연구』, 박이정.

7) 여기서 자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녹음하는 과정에서 제주방언의 음조를 연구할 목적으로 질문한 후 자유롭게 대답하고 말하는 과정을 세대별로 녹음하였다. 물론 통합된 어휘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유도하였으며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음이 들어간 단어를 말해보도록 하기도 하였으나 극히 일부만 말을 하였으며, 일부는 [·]음은 물론 전혀 제주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피험자들도 있었다.

현우중(1988). “제주도 방언의 [·] 음가 고찰.” 『우리말 음운 연구』, 한말연구회
 편, 208-240.

현우중(1997). “제주도 방언 [·]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우리말 음운연구』, 한말
 연구회편, 241-254.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연구 논고편』, 인우출판사.

Ladefoged, P.(1982). *A Course in Phonetics*. 2nd ed.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New York.

Ladefoged, P.(1996). *Elements of Acoustic Phone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김원보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1번지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전화번호: (064)754-2436

전자우편: kimwonbo@cheju.ac.kr

투고논문접수일	2005년 5월 7일
논문심사일	2005년 5월 16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7일

